



Benjamin B. Warfield와 성경비평주의

이 환 봉
(고신대 교수)

19세기 후기의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에서 발생하였던 중요한 하나의 논제는 전통적 성경 교리의 재작성을 요구하고 나선 “성경비평주의(Biblical Criticism)”였다. 그 당시의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비평주의의 이른바 “확실한 결과들(assured results)”에 의해 크게 고무되어 마침내 성경 영감의 전통적 교리를 재해석하거나 또는 포기하게 되었다.

Warfield는 그의 논문 「*The Real Problem of Inspiration*」에서 근대 성경비평주의가 성경 영감의 전통적 교리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부정적 비평주의의 결과들에 대한 폭 넓은 수용이 급기야 영감 교리의 재구성과 전적으로 새로운 신학의 수립을 요구하기에까지 이르렀다고 하였다.¹⁾

이러한 상황 속에서 Warfield는 「*The Princeton Theological Review*」를 중심으로 한 여러 신학 잡지들에서 자신의 비평적 서평들과 논문들을 발표함으로써 성경 영감과 무오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 자기 동시대의 과격한 비평가들과 대결해야만 했었다.²⁾

Warfield 이후에 성경 영감과 권위에 대한 수많은 신학적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나, 교회 중에 성경관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 있으며, 특히 오늘날 복음주의 안에 성경 해석의 합법적인 방법으로서 성경비평주의의 수용

- 1) B. B. Warfield, "The Real Problem of Inspiration,"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ed. Samuel G. Craig ; Philadelphia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0), pp. 170~171.
- 2) Cf. B. B. Warfield, *Critical Review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32) ; John E. Meeter and Roger Nicole, *A Bibliography of Benjamin B. Warfield, 1851-1921* (Nutley,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4).

여부를 둘러싼 신학적 논쟁은 더욱 새롭게 과열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근대 성경비평주의의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였던 Warfield의 신학적 입장과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성경비평주의에 대한 오늘날 우리의 신학적 견해를 다시 한번 새롭게 가늠해 보고자 한다.

Warfield의 글들 속에서 우리는 근대 성경비평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적 분석의 몇 가지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Warfield는 자유주의 비평가들이 현저하게 근대 사상들에 사로잡혀 있으며, 기독교가 그러한 사상들에 동화되어야만 한다는 것, 즉 근대 과학과 철학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특별히 유의하였다. 그리고 “기독교의 오래된 포도주를 근대 사상의 새로운 병들 속에 쏟아 부으려는” 시도는 결국 기독교 신앙과 근대 사상의 관계를 완전히 전도(轉倒)시켜 버리기 쉬운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해악(害惡)은 기독교 신앙을 근대 사상에 의하여 말하는 대신에 오히려 근대 사상을 기독교 신앙에 의하여 말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질 때에만 발생한다.”는 것이다.³⁾

많은 비평가들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그들은 기독교 사상을 다만 근대 사상의 한 철학적 체계로 변질시켰을 뿐이라고 논증하였다.

둘째로, Warfield는 근대 부정적 비평주의의 철학적 전제들과 그 신학적 결과들의 부당성을 폭로하기 위한 비평적 분석과 평가에 주력하였다. 부정적 비평주의가 주장하는 모든 반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Warfield는 당시의 비평주의자들이 교회의 전통적 영감 교리에 의의를 제기하기에는 전혀 무가치한 논증들을 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 것이다.⁴⁾

특히 그러한 반론들이 성경 그 자체로부터 제기되어진 것이 아니다. 과격한 비평가들이 자신들의 성경 연구에 적용한 철학적 전제들로부터 발생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⁵⁾ 이처럼 철학적 전제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결론을 미리 앞세우고 성경 연구에 임하는 근대 비평가들의 모든 반론들이 무효임

3) B. B. Warfield, “Review of Foundations: A Statement of Christian Belief in Terms of Modern Thought,” *Critical Reviews*, pp. 320, 322.

4) B. B. Warfield, “Inspiration and Criticism,”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p. 440~441.

5) A. A. Hodge & B. B. Warfield, *Inspiration*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9), p. 39.



을 선언하였다.

“기독교 종교의 문서 기원”에 대한 19세기 비평주의의 공격을 평가하였을 때, Warfield는 개혁주의의 성경 교리를 와해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위협하게 될 부정적 비평주의의 두 가지 신학적 경향들을 간파하고 있었다.⁶⁾

다시 말하자면, 성경의 초자연적 요소들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고 있었던 자유주의 비평가들이 추구한 두 부류의 노력들이 있었다. 하나는 “핵(the kernel)”으로부터 “껍질(the husk)”을 구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껍질”로부터 “핵”을 유리시키는 것이었다.

전자의 경우에 있어 F. C. Baur(d. 1860)와 과격한 합리주의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실제 발생하였던 일들로서 인정은 하지만, 그 기적적 색채는 모두 제거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던 소위 “심리학적 해석(psychological interpretation)”에 의하여 성경의 모든 기적적 사건의 발생들을 설명하려고 하였다.”⁷⁾ 다시 말하자면 초자연적 요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자연적 방법에 의하여 모든 성경적 기적들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Warfield가 앞서 지적한 후자의 경우에 있어 D. F. Strauss(d. 1874)는 비록 자신이 성경 기적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로서의 그것들의 실재성”을 부정하였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대로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고 믿었다.⁸⁾

Strauss의 이러한 신념은 그 후부터 지속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19세기의 비평적 공격의 기본 방침, 즉 역사(껍질)로부터 신앙(핵)을 분리하는 기본 정책이 되어 왔다.⁹⁾ 그러나 Warfield는 “시공간의 모든 우연적 사건들”을 벗겨 버린 후에 남아 있는 그 핵은 사실상 “각 개인 껍질 벗기는 자가 미리 전제한 신념 그 자체”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¹⁰⁾

다시 말하자면, 성경비평주의가 성경의 역사성(historicity)에 대하여 가한 비평적 공격의 기저에는 John Toland와 Mathew Tindal의 저술들 속에서

6) B. B. Warfield, “The Century’s Progress in Biblical Knowledge.” *Selected Shorter Writings of Benjamin B. Warfield* Vol. II (ed. John E. Meeter; Nutley,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0), pp. 6-7.

7) *Ibid.*, p. 7.

8) B. B. Warfield, “How to Get Rid of Christianity,” *Selected Shorter Writings of Benjamin B. Warfield*, Vol. I, p. 53.

9) *Ibid.*, p. 54

10) *Ibid.*

그 절정에 달하였던 영국 이신론의 “반초자연주의적 선입견”이 이미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다.¹¹⁾

그 당시의 과격한 비평가들도 역시 오늘날 현대 비평가들과 마찬가지로 표면적으로는 모든 고의적 전제들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그들은 저마다 어떤 철학적 전제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Strauss 자신은 “어떤 종교적, 그리고 교의적 전제들로부터의 감정과 지성의 내적 자유”를 주장하였으나, 사실상 그는 복음서에 대한 그의 신화적 이론을 위하여서는 여전히 몇 가지 특유한 전제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¹²⁾

Strauss도 역시 자기 시대의 과학과 철학이 요구하는 강압적인 요소들로 편견지워져 있었던 것이다.¹³⁾

어떤 역사적 사실과 내용이 없는 기독교는 다만 하나의 자연종교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Warfield는 주장하기를 확실한 내용을 가진 기독교의 역사적 실재로부터 떠나버림으로써, Strauss는 이미 그 자신이 기독교인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¹⁴⁾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니라 “역사적 종교”이며, 그 모든 교리들은 역사적 사실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Warfield는 반복해서 분명히 하였다.¹⁵⁾ 역사적 내용을 배제한 그 기독교는 사실상 역사의 주된 흐름 속에 계속되어 왔고 또한 계속되고 있는 전통적 기독교는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Warfield는 “구속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초자연적 사건들의 실제에 대한 무관심의 기저에는 항상 ‘자력 구원설(an autosoteric theory of Salvation)’이 놓여 있다.”¹⁶⁾고 비판하였다. 왜냐하면 초자연적 구속의 은혜에 예민하게 깨어 있지 못할 때에만 우리는 역사 세계 속에 나타난 신적 개입의 실재에 대해 무관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Christless Christianity”라는 글에서, Warfield는 역사비평주의(historical

11) *Ibid.*, pp. 51. 60.

12) *Ibid.*, p. 54 “Concerning Schmiedel’s Pillar Passages”라는 그의 논문에서 Warfield는 Strauss와 동일한 경우를 Schmiedel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다. “비록 그가 이러한 가정(기적이 불가능하다는)으로부터 출발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는 그 가정을 곧 변영의 결정적 원리로서 불러들이고 있다.” Cf. B. B. Warfield, *Christology and Criticism*(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p. 255

13) B. B. Warfield, *Critical Reviews*, p. 323

14) *Ibid.*

15) B. B. Warfield, *Selected Shorter Writings of Benjamin B. Warfield*, Vol. I, P. 59

16) *Ibid.*, p. 60.

criticism)가 “역사적 예수(the historical Jesus)”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깊은 불신을 조장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⁷⁾ 그리고 과격한 비평가들이 예수의 역사성(historicity)에 대한 모든 문제들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하나의 단순한 “역사적-과학적 문제”로만 보아 “고삐 풀린 역사비평주의”의 수중에 겁 없이 내어 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역사적 증거들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역사적 회의주의(historical scepticism)”에 크게 고무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⁸⁾

사실상 계몽주의(the Enlightenment)와 G. E. Lessing으로부터 유래한 그 역사적 회의주의는 마침내 기독교 신앙을 역사의 우연적 사건들과 한 역사적 인물로서의 역사의 예수(the Jesus of history)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게 하였다.

Warfield는 특별히 “역사의 우연적 진리들은 결코 이성의 필연적 진리들의 증거가 될 수 없다(accidental truths of history can never be the proof of necessary truths of reason)”는 유명한 진술이 나타나는 Lessing의 작은 책 「Concerning the Proof of Spirit and Power」(1777)를 자세히 검토하였다.

역사는 인간 이성에 의하여 입증되어진 종교적 신념들을 위한 그 어떤 근거도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 Lessing의 그 대담한 부정은 바로 일반적인 역사적 회의주의의 논거”임을 지적하였다.¹⁹⁾ 그리고 Warfield는 Lessing 이래에 역사에 대한 이러한 계몽주의적 판단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기까지 계몽주의로부터 그들의 정신적 유산을 이끌어 내었던” Kant와 Fichte 그리고 Hegel의 사상에 의하여서도 입증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하였다.²⁰⁾

“철저한 자연주의자”²¹⁾인 Ernst Troeltsche도 역시 “모든 종교적 진리의

17) B. B. Warfield, “Christless Christianity.” *Christology and Criticism*, pp. 327-328.

18) *Ibid.*, p. 316.

19) *Ibid.*, p. 320, 345

20) *Ibid.*, p. 321. Warfield는 Rudolf Eucken의 *The Truth-Contents of Religion*에서 Kant 와 Fichte의 관련 구절들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역사적 신앙이 하나의 의무이며, 구원에 속한다는 것은 미신과도 같다.”(Kant). “그러한 역사적 신앙에 매달리는 것은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보조적 사실들에 본질적 사실들과 동일한 가치가 주어지고, 결과적으로 주요한 사실들이 삭제되어지고 양심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해로운 일이다.”(Fichte).

21) B. B. Warfield, *Critical Reviews*, pp. 288, 323. Troeltsch가 자신의 철저한 자연주의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예수를 긍정하려고 노력한 것에 대하여 Warfield는 종종 따뜻한 찬사를 보내었다. 그러나 Warfield는 논하기를 “그(Troeltsch)의 기독교는 개작되어 단순히 하나의 내재적 유신론으로 변질되었다. 여전히 예수의 이름에 매달리는 것은 다만 하나의 통일점과 주문으로 외울 수 있는 이름을 필요로 하기

내용은 자명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에게 오직 개연성들만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던 “Lessing의 바로 그 정신”을 소유하고 있음을 밝히 보여 주었다.²²⁾

역사에 대한 역사비평주의의 이러한 전통적 선입관은 모든 과거를 불확실하고 불확정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리고 신앙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튼튼한 기초도 남아 있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기독교 그 자체를 많은 종교들 중의 하나로서, 그리고 그저 지나가는 한 종교적 사상으로서만 생각하게 되었다.²³⁾ 따라서 성경의 역사적 요소들과 예수의 역사적 전승들은 불확실한 것으로 의심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이러한 역사적 근거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근대 신학자들의 가장 우선적인 필요는 어떤 역사적 실재 인물, 즉 역사적 예수(the historical Jesus)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유리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Warfield는 이러한 필요의 배후에 “옛 합리주의의 쌍둥이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바로 “순수 이성이 그 자체의 절대적 능력으로부터 이성적 인간이 수용해야만 하고 또한 할 수 있는 종교적 진리의 전 체계를 충분히 산출해 낼 수 있다는 가정과 역사는 이성적 인간의 종교적 신념과 열망이 의지할 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분히 납득이 가는 사실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가정”이었다.²⁴⁾

비록 과격한 비평가들이 순수 이성에 호소하고 역사적 자료에 대한 불신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신앙을 「역사적 예수」와 독립적인 것으로 선언하게 된 그 직접적 동기는 역사적-비평적 연구의 결과들에 대한 타협과 복종 때문이었으며, 그리고 “역사적 실재들에 의존하지 않는 한 피난처”를 구하고 발견하려고 애쓰는 “허약한 역사적 회의주의”의 소심함과 공포심 때문이었다.²⁵⁾ 달리 말하자면, 그 일반적 동기는 “의심스러운 사실들과 인물들의 실제적 역사성에 관한 불확실한 느낌과 이러한 불확실성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보호하려는 요구”에 있었다는 것이다.²⁶⁾ 왜냐하면, 역사 비평가

때문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cf. W. A. Hoffecker, “B. B. Warfield,” *The Reformed Theology in America*(ed. David F. Wells ; Grand Rapids :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5), p.75.

22) B. B. Warfield, *Christology and Criticism*, p. 325.

23) *Ibid.*, p. 323 ; cf. *Critical Reviews*, pp.173, 178.

24) *Ibid.*, p. 337.

25) *Ibid.*, p. 327.

26) *Ibid.*, p. 337.

들은 역사적 사실들은 결코 개연성 그 이상을 능가할 수 없으며, 따라서 기독교는 한 역사적 사실로서의 「역사적 예수」에 의존할 수 없다고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Warfield는 이러한 역사비평주의의 부정적 결과들에 반대하여 역사적 사실들이 궁극적으로 확실성을 산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사실의 문제보다 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재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지금 존재하는 것이 확실히 존재한다면, 그와 똑같이 존재해 온 것은 확실히 존재해 온 것이다(There is nothing more certain than a matter of fact: What is, certainly is... If what is, certainly is, then what has been, just as certainly has been.)”²⁷⁾

다시 말하자면 Warfield는 “기독교의 기원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은 세상에서 발생한 모든 사실들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⁸⁾ 그리고 그는 그러한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는 역사적 증거들에 기초한 논증에 호소하였다.

근래 Vander Stelt는 그의 박사 학위 논문 *Philosophy and Scripture*에서 변증학과 성경에 관한 Warfield의 견해들 속에 나타난 그의 전(全)사상 구조는 명백하게 지성주의적인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²⁹⁾ 그러나 Warfield는 그의 저술들 속에서 인간 지성의 무능함과 죄의 결과로 인한 인간성의 비참함에 항상 유의하였으며³⁰⁾ 그리고 “humanum est errare”라는 원리를 비평적 연구에 나타나는 하나의 보편적인 인간성의 경향으로 지적하였다.³¹⁾ 또한 Beattie가 저술한 「*Apologetics*」의 서설에서는 합리주의(rationalism)를 자신의 변증학의 가장 큰 원수로서 규정하였으며, 비평적 연구에 있어 인간 이성의 자율을 주장하는 위협에 대하여 경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³²⁾

Warfield는 18세기 비평가들이 순수 이성에 의존하여 자연종교를 확립하려고 하였던 그러한 “천박한 지성주의(intellectualism)의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

27) *Ibid.*, pp.342, 343.

28) *Ibid.*, pp. 346-347.

29) J. Vander Stelt, *Philosophy and Scripture : A Study of Old Princeton and Westminster Theology* (NJ : Mack Publishing Company, 1978), p.182 : cf. T. F., Torrance, “Review of Warfield’s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7(1954), pp. 104~108.

30) B. B. Warfield, *Christology and Criticism*, pp. 339, 341.

31) B. B. Warfield, “Rights of Criticism and Rights of the Church,” *Selected Shorter Writings of Benjamin B. Warfield*, Vol. II, p. 596.

32) J. H. Gerstner, “Warfield’s Case for Biblical Inerrancy,” *God’s Inerrant Word* (Minneapolis : Bethany Fellowship, INC., 1974), p. 135.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Warfield는 “18세기의 잘못은 그 종교적 이론화에 있어 인간 악의 경우를 무시한 것이며, 그리고 ‘자연종교’의 이름 아래서 이성의 몇 가지 빈약한 진리들의 추상적 체계를 모든 종교의 총체로서, 또는 기독교의 모든 종교적 내용으로 주장한 것이었다”고 지적하였다.³³⁾ 그러므로 Warfield는 결코 어떤 지적 우월감에 신뢰를 두는 지성주의자가 아니었다.³⁴⁾

Warfield가 19세기 자유주의의 “역사적 예수”와는 무관하게 기독교 신앙을 새롭게 확립하려고 하였던 20세기 초의 신학적 경향을 검토하였을 때, 그는 신앙을 역사로부터 분리하여 인간의 주관성에로 내어 주었던 주관적 개인주의의 도래를 벌써 내다보고 있었다.³⁵⁾ 다시 말하자면, Warfield는 역사비평주의의 역사에 대한 전통적 불신이 “모든 외적 권위를 거부하고 각 영혼을 그 자체의 법칙으로 삼으려는 철저한 개인주의”에 의하여 더욱 크게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³⁶⁾ 그리고 이러한 주관적 개인주의는 “이성과 역사, 개인 생활과 전통을 너무 예리하게 구별지우고 의식의 어떤 현재적 순간의 힘을 과대 평가하였던” 계몽주의(the Enlightenment)로부터 유래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³⁷⁾

Warfield는 주관적 개인주의에 의하여 강화되어진 역사비평주의의 구체적인 경우를 “역사적 예수(the historical Jesus)”를 버리고 교회의 신앙 속에 항상 살아 있는 “역사적 그리스도(the historical Christ)”에만 집착하였던 F. Ziller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³⁸⁾ 이러한 Ziller의 신학적 추구는 신앙의 확실성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에 대한 실제적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던 Schleiermacher의 경우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신앙의 본질적 내용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의 세계를 피신하게 되고 우연적 요소로서의 역사는 철저한 역사비평주의의 손에 그대로 내어 준 바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주관적 개인주의에 의하여 신앙과 역사의 이원적 분리가 더욱 확고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Warfield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역사적 회의주의의 대표자들로서 Martin Kähler와 Wilhelm Herrmann도 본질적으로 Ziller와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혔다.³⁹⁾ 그리고 Martin Kähler의 기본 사상으로부터 Barth

33) B. B. Warfield, *Christology and Criticism*, p. 339.

34) B. B. Warfield, *Inspiration*, pp. 35-36.

35) *Ibid.*, pp. 313-367.

36) B. B. Warfield, *Christology and Criticism*, p. 323.

37) *Ibid.*, p. 324.

38) *Ibid.*, pp. 328-332.

39) *Ibid.*, p. 332.

와 Baltmann이 자신들의 출발점을 취하였다는 사실이다. 앞서 살핀 바대로 성경비평주의에 대한 그의 모든 분석과 비판을 고려할 때, Warfield는 실로 그 당시에 성경비평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적이었음에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Warfield가 확신한 바로는 단순히 과격한 비평가들이 비평을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에, 즉 그러한 사실이 성경에 대한 참된 비평(true Criticism)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⁴⁰⁾ Warfield는 “건전한 그리고 진리를 이끌어 내는 비평(a sound and truth-eliciting criticism)”의 임무와 권리를 결코 배격하지는 않았으며, 교회의 영감 교리에 대한 “모든 합법적 비평(all legitimate criticism)”을 반대하지는 않았다.⁴¹⁾ 따라서 근대 성경비평주의에 대한 Warfield의 비판은 비평 그 자체보다는 그 철학적 전제들과 주장된 결과들에 대한 것이었다.⁴²⁾

“증명의 부담(onus probandi)”은 먼저 교회의 영감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Warfield는 무엇보다 먼저 반대자들에게 그 교리에 대한 그들의 반대를 실제 증명해 볼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⁴³⁾

- ① 모순된다고 주장된 각 진술들이 성경의 원본 속에 분명히 나타나는지를 증명해 보라.
- ② 명백한 모순을 야기시키는 어떤 해석이, 그 구절이 명백히 의미하고자 했던 것인지를 증명해 보라. 난해점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그 어려움은 상황에 대한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참된 의미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것이 이미 알려진 다른 진리와 모순된다는 것을 드러내야만 한다.
- ③ 원본의 어떤 부분의 참된 의미가 확실히 알려진 역사적 사실, 또는 과학의 진리, 그리고 확실히 확인하고 해석된 성경의 어떤 다른 진술과 직접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⁴⁴⁾

40) B. B. Warfield, “Rights of Criticism and Rights of the Church,” *Selected Shorter Writings of Benjamin B. Warfield*, Vol. II., p. 596.

41) *Ibid.*, p. 598 :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 172.

42) Cf. B. B. Warfield, *Christology and Criticism*, p. 255 : *Selected Shorter Writings of Benjamin B. Warfield*, pp. 596-597 ;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 179.

43) B. B. Warfield, *Inspiration*, p. 34

44) *Ibid.*, p. 36.

이와 같이 Warfield는 성경비평주의의 확실한 결과들에 기초한 반대들 속에 있는 그 주장의 무효성과 비성경적 요소들을 언제나 폭로하려고 노력하였다.⁴⁵⁾ 그러나 때로는 Warfield가 성경비평주의 그 자체를 단순히 “우리가 진리를 검증하는 도구”로서만 간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⁴⁶⁾ 그리고 자기에게 실제적 예수뿐 아니라 초자연적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무편견적 역사 비평주의”를 신뢰함에 있어 Warfield는 실상 아무런 어려움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⁴⁷⁾ 특히 그가 성경의 진실성을 “성경비평주의의 가장 확정적 결과”로 언급한 것을 볼 때, Warfield는 변증에 있어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동일한 명칭 사용에는 유의하지 못하였다.⁴⁸⁾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우리는 Warfield가 근대 성경비평주의 그 자체를 성경 해석의 공인된 원리로서 과연 인정하였는지 아닌지를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표면적으로 보아서는 마치 Warfield가 성경비평주의 그 자체를 수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Warfield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가 의미하였던 “비평(criticism)”의 성격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아야만 한다. 그리고 성경비평주의에 대한 Warfield의 태도는 그의 저술들의 전 문맥 속에서 파악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Warfield에 의하면, 비평(criticism)은 주장되어진 것이 과연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확정하는 절차의 양식이다.” “비평”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더불어 Warfield는 베뢰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던 것처럼(행 17:11), 우리도 “이런 일들이 과연 그러한가를 알기 위하여” 성경의 독특한 주장들에 대하여 “가장 엄격한 비평적 질문”을 제기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영혼의 영원한 번영을 삶에 대한 무비평적 방식에다 맡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⁴⁹⁾

Warfield는 진리의 존재는 그 입증을 위한 비평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심지어 Warfield는 성경 본문에 대한 그러한 비평적 검토는 “명백한

45) *Ibid.*, pp. 37-39 :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p. 428, 437, 440, 441.

46) B. B. Warfield, *Selected Shorter Writings of Benjamin B. Warfield*, Vol. II., pp. 595, 597.

47) B. B. Warfield, *Christology and Criticism*, p. 346.

48) B. 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 429 : cf. *Inspiration*, p. 56.

49) B. B. Warfield, *Selected Shorter Writings of Benjamin B. Warfield*, vol. II., pp. 595-596.

의무"이며, "그 결과는 틀림없이 크게 유익하다."고 까지 주장하였다.⁵⁰⁾ 이러한 의미에서 비평은 성경적 진리의 본래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확신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Warfield는 분명히 구별하여 말하기를 "비평과 비평주의가 있다 (There is Criticism and Criticism)"고 하였다.⁵¹⁾

다시 말하자면 "참된 비평"(true criticism)"과 "근대 부정적 비평주의(modern negative criticism)"⁵²⁾ 또는 "건전하고 진리를 이끌어 내는 비평(a sound and truth-eliciting criticism)"과 "미혹하게 하는 비평주의 (a misleading criticism)"로 ⁵³⁾ 구분하였다. 그리고 Warfield는 "참된 비평"의 세 가지 본질적인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전제들을 떠나서 문제의 사실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정직한 정신적 포기 상태
- ② 가장 신중하고 완전하며 무편견적인 사실들의 수집과 검토
- ③ 사실들에 기초하여 추정을 내림에 있어 매우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⁵⁴⁾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는 참된 비평의 관점에서 Warfield는 근대 부정적 비평주의에는 "비평의 영예로운 이름"조차도 부여하기를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근대 성경비평주의는 이러한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순수한 비평의 모든 표준을 무시하기 때문이었다.⁵⁵⁾

Warfield는 날카롭게 지적하기를 과격한 비평가들이 "비평의 권위"를 "자신들의 비평적 방법들의 정당성과 비평적 결론의 건전성"으로 혼동하고 있다고 하였다.⁵⁶⁾ 그리고 위기는 "비평의 정당한 권리를 자신의 비평의 정당성과 혼동하는 인간의 뿌리 깊은 성향"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⁵⁷⁾ 그러므로

50) B. B. Warfield, *Inspiration*, p. 39 : cf. *Selected Shorter Writings of Benjamin B. Warfield*, Vol. II., p. 596.

51) B. B. Warfield, *Selected Shorter Writings of Benjamin B. Warfield*, Vol. II., p. 597 ;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 171.

52) B. 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 430.

53) B. B. Warfield, *The Selected Shorter Writings of Benjamin B. Warfield*. Vol. II., p. 598.

54) B. 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p. 429-430.

55) *Ibid.*, p. 429.

56) *Ibid.*, p. 171.

Warfield는 “비평가 비평주의(Criticism and Criticism)”를 동일시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Warfield는 참된 비평의 권리를 인정하는 반면에, 근대 성경비평주의의 비평적 방법들과 결론들의 정당성은 부정한 것이다.⁵⁸⁾

비록 Warfield가 종종 자유주의 비평가들의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을지라도 신학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자유주의의 비평적 도구들로서 더욱더 분명하게 정의되고 지명되어 온 성경비평주의(Biblical criticism)를 결코 용인하지는 않았다.⁵⁹⁾

근대 비평주의의 부당성을 날카롭게 지적함에 반하여 Warfield는 성경 영감의 전통적 교리를 지지하는 비평적 주석의 건전한 원리들로서 “신약 본문에 대한 신중한 개정과 역사-문법적 주석(historico-grammatical exegesis)의 과학적 원리의 적용”을 주장하였다.⁶⁰⁾

다시 말하자면 Warfield는 본문 비평(textual criticism)과 역사-문법적 방법(the historicalgrammatical method)을 참된 비평, 즉 합법적 비평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웨스턴 신학교(Western Seminary)에서 봉직할 때부터 Warfield는 벌써 본문 비평을 매우 진지하게 연구하였다.⁶¹⁾ 그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책, 「*Textual Criticism of the New Testament*」에서 Warfield는 본문 비평은 현존하는 그 어떤 사본이 제공하는 것보다 원본에 더 가까운 본문을 우리에게 볼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한 정밀 조사의 과정을 통하여 신약 본문의

57) B. B. Warfield, *Selected Shorter Writings of Benjamin B. Warfield*, p. 596.

58) B. 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 171.

59) Cf. *Ibid.*, p. 429 ; *Inspiration*, pp. 54, 56. Warfield는 영감 교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매우 드물게 성경비평주의의 결과들에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몇몇 경우는 Warfield의 변증학적 자신감에 비추어 이해되어야만 할 것이다. 즉 그는 세속적 전제를 떠난 무편견적 비평의 정확한 적용은 성경 영감의 전통적 교리를 더욱 분명히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Warfield는 성경 비평주의 결과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학문적으로 대응하려는 적극적 태도르 항상 견지하고 있었다. Warfield가 “조화(harmonization)의 원리”를 “역사비평주의의 인정된 한 원리”로서 언급하였을 때, 그 “역사비평주의(historical criticism)”는 사실상 “역사적 연구(historical investigation)”를 의미한 것이었다. Warfield는 여기서 역사비평주의와 역사적 연구를 상호 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60) B. 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 423 ; cf. *Inspiration.*, pp. 38, 40-41.

61) Cf. B. B. Warfield., *An Introduction to the Textual Criticism of the New Testament* (London : Hodder and Stoughton, 1886).

거대한 분량이 원본으로부터 본질적인, 또는 중요한 변동 없이 그대로 전수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고 하였다.⁶²⁾

Warfield가 비록 과학적 방법을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그는 본문 비평의 문제를 성경 무오의 문제와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었다.⁶³⁾ 그에 의하면 주석은 문법적인 동시에 역사적이어야 하며, 그리고 항상 한 구절이 의도하는 바 그 의미를 추구해야만 한다.⁶⁴⁾

「*Manuscript Materials of the New Testament*」에서 Warfield는 역사-문법적 주석의 다섯 가지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하나님 자신의 본문을 확정하는 것.
- ② 엄격한 문법에 따라 모든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구성하는 것.
- ③ 한 구절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
- ④ 그 구절의 완전한 의미, 그것의 교리적 추론과 적용을 질문하는 것.
- ⑤ 해석이 단순히 차갑고도 사변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앙이 요청되어지는 것.⁶⁵⁾

성경 본문의 의미가 추구되어지는 이러한 단계들이 Warfield의 모든 저술들 속에 잘 예시되어 있다. Warfield는 믿기를 만약 우리가 성경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역사-문법적 주석의 원리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영감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 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⁶⁶⁾ 동시에 성경 본문의 역사-문법적 의미에 대한 바로 이러한 추구는 Warfield에게 성경 모오에 관한 관심을 새롭게 환기시켜 주었다.

Warfield는 “비평적 주석 원리의 적용”은 모든 점에서 성경 영감의 전통적 교리를 강화시키기 보다는 약화시킨다고 믿었다.⁶⁷⁾ 따라서 그는 확신 속에서 반복하여 선언하기를 “최상 최선의 과학적 근대 주석”은 성경의 완전(심지어

62) Wilber B. Wallis, “B. B. Warfield : Didactic and Polemic Theologian”(pt. 2.), *Covenant Seminary Review*, p. 7.

63) D. Clair Davis, “Princeton and Inerrancy,” *Inerrancy and the Church*(Chicago : Moody Press, 1984), p. 361.

64) B. B. Warfield, *Inspiration*, p. 43.

65) John J. Markarian, *The Calvinistic Concept of the Biblical Revelation in the Theology of B. B. Warfield* (New Jersey : Drew University, 1963), pp. 190-191.

66) B. B. Warfield, *Inspiration*, pp. 40-41.

67) B. 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 427.

축자적) 영감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였다.⁶⁸⁾

분명히 전통적 개혁주의 성경 교리와 비평적 연구의 적용 가능성을 훌륭하게 통합함으로써 Warfield는 성경의 권위와 무오를 확고하고도 지속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다.

현대 해석학적 갈등의 와중에 있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항상 좋은 도전으로 남아 있을 Warfield의 다음과 같은 말로 본 글을 맺고자 한다.

“비평적 연구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그 연구가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한 결론에 도달하였을 때 우리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만 한다. 그러나 분명히 그 연구는 무한한 겸손과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그리고 은혜로우신 성령의 지속적인 인도를 위한 기도와 더불어 수행되어야만 한다. 지적 우월감, 또는 모든 시대의 영적 교회에 대한 무관심과 현재의 하나님의 겸허한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혼란 상태에 대하여 개의치 아니하는 것은 결코 성공적 연구의 표시로서 인정될 수 없다.”⁶⁹⁾

Soli Deo Gloria!

68) *Ibid.*, pp. 425-426, 429.

69) B. B. Warfield, *Inspiration*, pp. 5-36.

* 표지 그림 감상

생명에의 삼중주

싱싱한 푸르름 생명 바다여	중앙으로 흐르는 맑은 시내
그 속에 뛰어들어 누리고 싶다.	못 생명들의 젖줄이려니
푸름이 뿜어 내는	에스겔이 본
싱그럽고 향긋한 테르펜(Terpen)	성전 문지방으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같다.
맘을 식히는 시원한 녹음	
마음껏 마시며 누리고 싶다.	모든 좋은 것들의 원천이신
	주님의 모습처럼
저 멀리 바라보는 아담스런 교회당	그가 만드신 자연 세계도
엄마의 품처럼	그의 영광과 체취가 풍겨
달려가 얼싸안고 또 안기고 싶다.	창조주를 향한 찬양이 절로 터져 나온다.

-최-